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2012 May

Contents

- Highlight & 뉴스
- UNEP FI 행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금융
- UNEP FI 출판물 & 트레이닝
- UNEP FI 커뮤니티
- UNEP FI 파트너 뉴스
- UNEP FI KG 뉴스



자연자본선언 웹사이트 새 단장



자연자본선언(NCD)의 웹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되었다(www.naturalcapitaldeclaration.org). NCD가 활성화 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개설된 본 웹사이트는 자연자본과 NCD의 목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싣고 있다.

“NCD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면서 NCD를 전세계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고, 새 웹사이트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주요 부분이었다.”라고 Ivo Mulder는 말했다. “현재 자연자본선언에 서명한 금융기관의 수는 20개이며 이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NCD는 리우+20 지구 정상회담에서 금융기관들이 발표할 예정인 선언문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연자본 고려사항을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NCD는 UNEP FI가 영국의 Global Canopy Programme, 브라질의 교육센터인 Getulio Vargas Foundation과 협력하여 작성하였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UNEP FI 사무국장 모집

UNEP FI가 현재 사무국장을 새로 모집한다. UNEP FI 사무국장 모집은 서로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금융, 투자, 보험, 경제, 환경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2012년 6월 23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지속가능한 파이낸싱과 PSI의 중요성, 최근 파트너십에서 부각



UNEP FI가 4월 말 SSI(지속가능선박이니셔티브)가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선박 금융'의 지식 파트너가 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산업계가 점점 더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UNEP FI와 구체화 단계에 있는 녹색 경제에 희소식이다.

SSI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박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이니셔티브다.

선박업계의 'Case for Action'과 '2040 비전'을 표명한 바 있는 SSI는 현재 '지속가능한 선박 금융'을 포함한 실용적인 워크스트림(work stream)을 개발 중이다. 이 워크스트림은 금융권과 선박업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회합하여 서로 다른 이해 관계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지속가능한 선박 금융 방법을 모색한다.

자세한 정보 곧 전달 예정

UNEP FI, 리우+20으로 행보



세간의 모든 관심이 증대한 역사적 순간이 될 UN 지속가능개발 회의(리우+20, 올해 6월 개최)로 모아지고 있다. UNEP FI 또한 리우+20에 참가하며, 여러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

6월 15일~18일, 리우데자네이루, Windsor Barra 호텔: 에서 UN 글로벌콤팩트가 UNEP과 협력하여 리우+20의 공식적인 민간부문 플랫폼이 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개최한다. UNEP FI는 본 포럼에서 두 개 세션을 열 계획이다.

6월 17일: "Green Gold: Financing the way forward"에서는 은행, 보험사, 투자자들이 녹색 비즈니스, 기업, 산업과 녹색 경제로의 변화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식견이 제공된다. 세션에는 UNEP 녹색경제보고서 중 금융을 다룬 부분이 활용될 예정이다.

6월 17일: "1992년부터 2012년: 금융부문 지속가능성 주요 흐름의 20년"은 금융기관들의 일상 업무 전략과 운영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적용하는 작업의 진행상황과 동향을 강조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20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 과제가 평가된다.

또한 6월 16일 UNEP FI는 UNEP, UN 글로벌 콤팩트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추어 고급화된 지속가능 에너지 기술에서의 민간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은 올해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Energy for All)' 로 지정된 것에 따라 진행된다.

자연자본선언 발표

6월 16일 2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포럼

자연자본선언: 금융기관 CEO의 입장

6월 18일 오후 5시 15분, Rio Pavillion

자연자본선언: 자연자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방법론

6월 20일 오후 12시, Rio Centro

자연자본정상회담

지속가능보험원칙 발표

6월 19일, 리우데자네이루, Sofitel Rio Copacabana 호텔: UNEP FI의 지속가능보험원칙이 리우+20 시작 전일에 발표된다. 보험산업의 주요원칙인 지속가능보험원칙은 UN PRI나 UN 글로벌 콤팩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UN의 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들과 상호보완적이다. 본 행사에서는 국제보험회와 브라질보험연합이 공동 주최하며, UN과 정부 인사, 그리고 전세계의 선진 보험사의 CEO와 간부 수백 명이 화합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UNEP FI Publications

New working paper: UNEP FI 리우+20 성명서



UNEP FI 리우+20 성명서는 리우+20 국가들에게 지속가능 금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금융부문이 맡는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 성명서는 리우+20에서 국제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지속가능금융을 더욱 촉진시키고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 문서는 국제 커뮤니티가 보다 더 균형적이고 참여적인 녹색 경제 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부문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UNEP FI 기관들의 공동된 의견을 피력한다.

전체 다운로드 [여기 클릭](#)

프로모션: UNEP FI 회원들과 시민 사회 대표들에게 모든 UNEP FI 강좌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unepfi.org/training

환경·사회 리스크 분석(ESRA)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5월 14일~6월 1일(영어)/6월 11일~6월 29일(스페인어)/10월 8일~10월 26일(프랑스어)

본 강좌는 3주간 상호작용적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상업용뱅킹, 펌뱅킹, 투자금융, 소매금융에 종사하거나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 시장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자와 분석가를 특히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자본 조달(FEEE)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6월 11~ 6월 29일 (스페인어)

본 강좌의 목적은 특히 자산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자본 조달과 투자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기후 변화: 금융 부문의 위기와 기회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10월 15일~11월 5일 (영어)

기후 변화 현상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따라 개설된 본 강좌는 수강자들이 기후 변화, 국제 기후 변화 제도의 구조 이면의 과학, 그리고 은행·투자·보험계를 아우르는 금융 시장이 그에 따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UNEP FI Community

두 보험사 UNEP FI 커뮤니티에 가입하다



Sun Life Financial은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다양한 자산 증식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국제 금융 서비스 기관이다.

1865년에 인가된 이후로 Sun Life와 그 협력사들은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홍콩,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버뮤다를 포함한 주요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SulAmerica는 브라질의 주요 보험사다. 현재 67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116년 간 보험 산업을 운영해 왔다. 본 회사는 네덜란드 금융지주인 ING가 설립했다.



파이낸셜 타임즈/국제금융공사 지속가능금융 컨퍼런스: 2012년 6월 14일, 영국 런던

FINANCIAL TIMES
LIVE | Global
Conferences
& Events

파이낸셜타임즈/국제금융공사 지속가능금융 컨퍼런스는 전세계 산업계 지도자, 기업의 의사결정자, 금융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속가능금융 행사다.

올해 7회를 맞는 지속가능금융상(賞)은 기후 변화와 환경 저하, 사회적 배제, 식량 안보 등 세계의 가장 긴급한 문제에서 금융부문이 맡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금융과 세계 빈곤층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그린업(Green Up) 영화제, 2012년 10월 8일~10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및 루벵라네브 또는 온라인

UNEP의 그린업 이니셔티브의 협력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연례 그린업 영화제는 점점 증가하는 환경 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으로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업 영화제는 현재 책임 있는 경제 성장과 녹색 경제 고취에 관심 있는 스폰서를 찾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제 9회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상회담: 2012년 6월 13일, UAE 두바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지 '가지면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CSR 정상회담이 올해 9회를 맞아 개최된다.

본 행사는 해당 지역의 CSR 전문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CSR의 발전을 위한 학습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지속가능한 에너지 금융 하계 연수: 7월 15일~7월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 10월 21일~26일, 케냐 나이로비



UNEP의 기후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금융 협력 센터인 프랑크푸르트 연수원이 참여 희망 인원의 급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금융 하계 연수'를 2012년에 두 번 개최하기로 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Sustainable Finance Geneva, 책임투자자들을 위한 개인 원칙 선보여

5월 초 Sustainable Finance Geneva는 지속가능금융 전문가들을 위한 행동 원칙들을 발표했다. 이 원칙들은 투자와 다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우수 사례를 규명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Santam, 기후변화賞 수상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비생명보험사이자 UNEP FI 회원기관인 Santam이 4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2012 기후변화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은 Santam이 [*Insurance in a Changing Risk Landscape: Local lessons from the Southern Cape of South Africa*](#)라는 조사 연구로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Santam 그룹, WWF, 케이프타운대학교,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학산업연구의회 등 기관들의 공동 연구로 UNEP FI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수은,녹색금융 선봉..물기업 '이니마' 인수 금융지원

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이 기업인수자금제공을 통해 21세기 블루골드로 불리는 '물산업'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의 선봉대로 나섰다. 수은은 15일 국내기업 최초로 해외 물기업인 스페인의 글로벌 물 전문 선도기업 '이니마'사를 인수하는 GS건설에 총인수금액 2억3천100만유로(3천400억원)의 53%에 해당하는 1천800억원의 인수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은 GS건설이 이번 M&A를 통해 글로벌 물시장에서 선두업체인 이니마의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경험을 확보하고, 최근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 물시장에서 입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은은 "앞으로 이니마가 수행하는 해외 물시장 민자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며 "21세기 '블루골드'로 불리는 해외 물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또 "지난 2010년부터 '그린 파이오니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녹색기업들의 해외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 "이번 인수금융 제공도 그동안 힘써온 녹색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에너지관리공단(KEMCO)과 '녹색금융 업무 협약' 체결

신한은행과 에너지관리공단(KEMCO)은 15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본사에서 '녹색금융 및 에너지 다이어트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보전 및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실천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고객과 은행이 '에너지 절약'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조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이어트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 전용 정기예금과 여신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며, '에너지 다이어트 운동' 인증서 보유고객에게 금리를 우대하는 적금도 향후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銀, '걷고 기부하기' 행사 개최

하나은행이 21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400여명의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걸음수만큼 일정액을 기부하는 '걷고 기부하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 종료 후에 임직원들은 만보계에 나온 걸음 수를 행내 사이트에 등록하고, 시즌 종료 후 걸음수 10보당 1원씩 자발적인 기부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임직원들이 총 4억2571만58 걸음을 걸어 모금한 금액과 은행에서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출연, 1억405만 5808원을 환경 보전, 아이티 지진 구호 등에 기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녹색발바닥 캠페인은 녹색성장과 나눔 문화를 기초로 하는 기업문화에 발로 뛰는 현장 중심경영이라는 의미를 접목한 것으로서 하나은행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에코전자약관이 숲이 됐어요

삼성화재는 31일 자동차보험 전자약관 제도로 종이낭비를 줄여서 모아진 기금으로 수원 영동중학교에 '학교숲'을 기증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Eco-e약관' (약관, 증권 등)을 선택한 고객에게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또 절감된 사업비도 별도로 적립하여 기금을 마련하며 산림청과 한국녹색문화재단이 학교숲 조성을 담당한다. 삼성화재는 2009년부터 전자약관 제도를 도입하여 절감된 비용을 보험료 할인과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해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은 고객 참여가 낮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도 아끼고 학교숲 조성에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전자약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 나무를 심어 학생들에게 숲이 우거진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친환경 금융상품 뜬다"...우리銀, `그린적금` 본격 시동

우리은행은 17일 `그린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적금은 1년제 적립식예금 상품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과 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조건 없이 연회비가 평생 면제되는 신용카드인 우리그린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금액의 최고 20%가 적립되는 환경부 에코머니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저축할 수 있는 친환경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최고 연 4.4%지만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환경부 에코머니 포인트를 달마다 5400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정상 이자에 포인트 입금까지 더해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은 연 14.4%에 이른다. 입금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실제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그린카드의 그린멤버십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레저·문화시설에 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장은 "그린적금은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받는 그린카드와 높은 이율의 적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49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